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세션 26, 이사야 선정 구절, 1부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26, 이사야가 선택한 구절, 1부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말씀을 합시다. 아버지, 또 하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길이 험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놀라움과 도전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행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말은 우리에게 친구로 묶여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잠언에서 일깨워 주듯이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 성경의 이미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연구하고 그의 마음과 선지자들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그 메시지에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부터 과정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이사야서의 선택된 구절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내 생각에 더 중요한 구절에는 신학에 대한 이사야의 가장 큰 공헌과 신약성서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동안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시 찾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감정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으며, 삶이 영구적으로 낙담과 절망의 수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현실 점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베푸는 가장 큰 공헌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와 희망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는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때가 올 것이며, 군대가 침략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더욱 의롭고 정의로운 왕을 얻기 위한 정치적 투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뜻은 동의어가 아니지만, 개인의 행동과 국가의 행동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명을 찾기 위해 실제로 6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는 달리, 이사야의 사명이나 부르심은 6장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선지자적 임무를 맡은 이 위임은 우리가 첫 비전, 즉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일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과정을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서, 소위 말하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유전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임무에 당신을 부르셨다는 느낌이 없이는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임무에 맞서 더욱 더 달려가고 싶어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네 가지 설교를 했는데 왜 바로에게 갈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사야의 임무를 보면, 내 말은 당신이 기독교 사역에 안수받고 당신의 회중에서 받게 될 모든 정적 때문에 실패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설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측면이 있는데,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은 굳어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둔해지며,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기에는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그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비전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웃시야 왕이 죽던 해인 6장에서 시작됩니다. 웃시야는 792년경에 왕위에 올랐고, 740년까지 52년간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날짜는 학자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것은 740년입니다. 나는 이사야의 연대를 740년에서 680년이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대략 60년의 사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웃시야의 죽음은 유다에서 영적인 활력이 넘치던 황금시대가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땅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웃시야 시대의 배경 자료가 있고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 중 몇 가지만 알려 줍니다.

그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가끔 언급되는 아사라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26장 5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스가랴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훈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 52년의 역사를 지닌 이 왕에 대한 서론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대통령에게도 52년의 백악관 재직 기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즉,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3절에 따르면 그는 십대 청소년으로 시작해 16세에 통치하는 어린 나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는 농업과 상업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사막에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남왕국의 상업을 확장했다.

성공에 대한 그의 가장 큰 주장 중 하나는 군대 보호 측면에서 군사적으로 말하면 남부 왕국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는 307,500명의 전투 병력이 있는 전장에 상비군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더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슬 투구를 착용하고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군대를 현대화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발명한 기관을 만들어 망대와 모퉁이에 설치하여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표현은 역대하 26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른 어떤 것보다 군대를 현대화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동부 전선에서 암몬 자손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그는 향을 피우기로 결정했을 때 책임이 부족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웃시야가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는데 거기 제사장 80명이 웃시야 왕을 대적하여 이르되 웃시야야 네가 여호와께 분향할 권한이 없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그는 제사장 직분에 침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구민이 카톨릭 교회에 와서 목걸이를 걸고 오늘은 성찬례를 집전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세요? 물론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나병법은 나병환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척당했고, 바로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해임되어 더 이상 국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시야의 생애 말기에 실제로 공동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웃시야는 남왕국의 매우 긍정적인 왕이었습니다.

최고 중 하나입니다. 나는 다른 정말 좋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요시아, 웃시야와 같이 그들이 한 긍정적인 일에 대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헌 측면에서 그들을 상위 3위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Joe Ash, 저는 확실히 그를 매우 긍정적인 기여자로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또 다른 좋은 사람. 조 애쉬(Joe Ash)는 심하게 파손된 성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헌금하게 하고 그들의 은금을 성전에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성전이 오랫동안 황폐해졌던 공동체의 생활에 실로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예, 그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한 측면에서 확실히 제가 보기에 상위 5위 안에 들 것입니다. 좋은 지적. 이제 올해에 웃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예언 기록의 고전 시대 또는 황금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나타냅니다.

북쪽 왕국의 아모스와 호세아는 8세기의 선지자들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는 이제 8세기의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 미가가 이 시기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웃시야 시대부터 그 후에도 여러 해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2년 만에 국가적 애도를 치르는 이 시기에 왕은 세상을 떠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예언적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모스는 다섯 가지 환상을 보았고, 스가라는 밤에 일련의 여덟 가지 환상을 보았고, 에스겔은 마른 뼈와 다른 것들에 대한 환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환상에서 이사야는 성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을지 여부를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아마도 하늘의 성전이었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의 언어는 다소 어렵게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은 어느 때나 주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이 개념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눈을 가리거나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의 가장 유대적인 부분 중 하나인 마태복음은 유대 신앙 공동체에 전하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없거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거나, 하나님을 본다면 살 수 없을 것인데,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야곱은 요단 계곡 동쪽에서 씨름 경기를 했고, 그 경기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파니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니엘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는 씨름 능력을 가진 이 천사 방문자였으며 또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하거나 분투하거나 다투는 자로 이름을 바꾸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일시적인 형태이거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종의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에게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근원과 지지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사람들이 무엇을 보든지 우리는 그의 영원한 본질이 가려져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견해일 뿐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주님의 천사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이 나타나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보좌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든 이 환상에 나오는 일종의 인간 형태이며, 이 인간 형태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시거나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아도나이(Adonai), 대문자 L(소형 오드), 그리고 램 경(Lord Ram)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의 설립자인 아도나이 램(Adonai Ram)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어 올려졌다는 의미에서 높다. 그리고 이 단어 Adonai는 네 개의 대문자나 테트라그램마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모든 인류가 종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신성한 통치자, 주권자에게 분명히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에 대한 이 환상은 우리가 6장에서 보게 될 대조의 시작을 다시 설정합니다. 원한다면 종과 주인 사이. 사실, 그것은 Adonai를 번역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의존적인 인간관계, 즉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고 의존하는 사람과의 우월한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물론, 더 나아가 우리는 그토록 높임을 받은 이 분에 비추어 그 자신의 죄성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우리가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사이의 차이를 실제로 보여주는 성경의 위대한 장 중 하나입니다.

도덕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누가 위대한지, 그리고 부르심에 있어서 누가 복종하고 복종하는지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나이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포함한 인류 가족 각 구성원의 주인이시며 그에게 무한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는 선지자라는 부름에 겸손한 종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 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에서 발견된 동일한 두 단어가 57:15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높고 존귀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와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Ram은 들어 올려지고 높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이 바로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 곳입니다.

서안 지구의 라말라는 주요 도시입니다. 아랍어에서는 간단히 말해서 알라는 높임을 받으신다고 고백합니다. 라말라.

그래서 그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단어들은 정말로 높고 고상한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권을 말씀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의 옷, 즉 그의 옷자락은 아마도 길고 길고 긴 웨딩드레스의 띠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 로브가 상징하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권력과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초반부에서 지혜와 눈처럼 흰 머리로 묘사된 인자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합니다. 계시록이 어떻게 환상에 빠져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때때로 랍비라고 불리는 라메즈는 단 한 단어로 어떤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인자와 같아서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었느니라.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작은 표현이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옷의 길이에 대한 개념은 다시 권위자에게 말하고, 경영진에게 말하고, 책임자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더 단축된 의상과 더 짧은 의상은 권위를 가진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요셉이 야곱에게서 소매가 달린 긴 옷을 받은 요셉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형제들 사이에 시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그 옷이 화려하거나 여러 가지 빛깔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봐요, 저는 평범하고 칙칙해 보이는 이 물건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화려한 로브를 받았어요.

질투의 원인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것은 옷의 길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동생은 형들에게 너무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예복의 단, 왕의 예복의 술, 혹은 치마입니다. 시편 104편 2절, 주님은 옷을 입듯이 빛을 입으십니다. 이 성전에는 보좌 주위에 스랍들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세라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끝맺는 말은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끝나는 남성형 복수 어미를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랍은 단수형이 되고, 세라핌은 복수형이 됩니다. 이 텍스트의 영어 번역에 따라 때로는 사람들이 세라프에 s를 붙이고 거기에 영어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 그룹, 스랍, 스랍.

그러므로 세라핌이든 세라핌이든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뿌리 스랍은 불타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천사는 정의에 따르면 불타오르는 천사입니다.

이들은 손, 얼굴, 발을 가진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명백히 인간의 형태를 한 날개 달린 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좌 주위에서 그들의 끊임없는 사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신성한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일 것입니다. 세라핌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룹들이 더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는 에덴동산 이야기에서 그룹의 주제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론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은 전능자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찬양을 나타내기 위해 보좌 주위에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형태의 천사였습니다.

보좌 주위에 떠다니는 이 천사들이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2개로 얼굴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 세계의 예술 작품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신 세메쉬 앞에 서서 그의 법을 받는 함무라비를 예로 들어보자. 그리고 그는 비석 위에 서서 태양신 앞에 서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도 보좌 주위에 있는 이 불타오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광채와 광채로 인해 그의 얼굴을 가려야 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겸손과 존경심이요. 그 겸손함은 이 날개 두 개로 발을 덮었다는 사실까지 확장됩니다.

아마도 성기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사용됩니다. 사사기 3:24 소변을 보는 것은 발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뇨를 표현하는 문자 그대로의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론 명사 소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것은 발의 물입니다. 사실, 이사야서에는 그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발의 물. 따라서 이것은 두 날개가 눈을 덮고, 두 날개가 생식기를 덮고, 나머지 두 날개는 비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외심, 전능자 앞에서의 사명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대 목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앞뒤로 부르는 후렴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들은 서로를 부르고, 노래는 아니더라도 대안으로 또는 아마도 일종의 응답적인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뒤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읽지 마십시오.

성경에 읽혀지는 가장 큰 신화 중 하나는 천사가 노래한다는 개념입니다. 나는 천사가 언급되는 모든 곳을 찾아보면 적어도 성경에서는 천사가 노래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말한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성경 말씀을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는 말하거나 말하는 데 동일한 용어가 사용됩니다. 어쩌면 개발되면서 그 물건에 대한 Midrash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Seder에서 언급되었는데, 지난 수요일 밤 Seder를 이끄는 사람은 천국에서 모든 천사들이 바로와 그의 정예 병거, 즉 먼지를 물어뜯는 수백 명의 정예 병거의 죽음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악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원수가 패하더라도 기뻐해야 합니까? 내 말은,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니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수를 이겼을 때에도 찬양에 너무 열중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누군가가 자신의 보상, 즉 정당한 디저트라고 부르는 것을 얻었을 때 그들의 죽음에 대해 매우 의기양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면 겸손하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에스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찬송가의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찬송가를 성경 본문으로 다시 읽습니다. 고대 찬송가에서는 이것을 트리사기온(Trisagion)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기오스(Hagios)는 거룩하다는 뜻이고, 삼중으로 거룩하다는 뜻은 트리사기온(Trisagion)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이사야의 이 언어를 다시 암시하면서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노래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사야서의 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회당에 가면 기도서에 나오는 매주 안식일 전례 독서의 일부인 이 표현을 케두샤(Kedushah)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십 번 학생들을 회당으로

데려갔고, 기도서와 기도 제목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고든 학생들의 도움을 위해 편집 논평을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카도쉬, 카도쉬, 케두쉬, 케두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 글자 어근 QDSH에서 유래한 매우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거룩하다는 개념에서 분리되다, 분리되다를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 이 케두샤(Kedushah)는 아미다(Amidah)의 일부인 이 기도, 아미다(Amidah)는 조용히 바쳐지는 유대교의 상설 기도이며 소위 18개의 축복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서서 하는 기도지만 유대교의 표준 기도입니다. 왜 세 번? 여기서 주된 목적은 삼위일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것과 매우 유사하게 반복되는 문구는 7장 4절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약탈당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성전이 점령당하고 약탈당할 것이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네 번 반복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그러므로 반복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위에는 더할 수 없습니다.

유한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분을 분리시키는 신적 완전성의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어 계십니다. 그분은 죄 많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조물과 구별되십니다.

확실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분 당시의 사람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쉽게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과 신을 합치려는 범신론적 경향이 있는 동양 종교에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누군가가 창조물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연 숭배를 피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주변의 세계, 그리스인, 가나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숭배에 열중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창조물과 별개로 거룩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지만, 그들에게 오십니다. 역설. 히브리어 성경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역설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만군의 여호와 또는 전능하신 여호와로 묘사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신성한 이름, 즉 주님을 나타내는 네 개의 대문자, 테트라그램마톤, 요드-헤-바-헤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6,800회 이상 사용되었으며, 아도나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습니다. 아내, 남편, 종, 주인은 엘로힘과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교도 신들, 재판관,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고유하기 때문에 항상 대문자로 표시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곧 언약의 신실하심의 영원하신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나님이시다.

에히야, 아세르 에히야, 나는 지금의 나이거나 앞으로의 내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즉 이스라엘이 알게 된 시내산 율법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역사적 확장 이 이름의 의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예배실의 찬송가에 사용된 제바오의 주라고 불립니다. 강력한 요새는 우리 하나님, 주님 zabayot, 그의 이름은 대대로 동일하며 그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zabayot라는 단어는 안식일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찬송가에 잘못 인쇄한 것도 아닙니다. 호스트를 의미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주 예수처럼 위의 별빛 군대, 찬송가에서 표현한 모든 반짝이는 별빛 군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에 이 단어는 영광이 충만한 왕,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우주를 다스리는 천사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보좌에

앉아 이들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를 둘러싼 생물들. 온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헤셀의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이 주제에 있어서 놀라운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 작곡가가 말했듯이, 나뭇잎을 볼 때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왜 믿는지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에 대한 논증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그분의 임재는 자연을 통해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만드신 궁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천사들의 목소리에 문설주와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 환상에서 이사야가 성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음을 암시할 것입니다. 이 구조의 흔들림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안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두 단어를 취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당신의 성경 컴퓨터, 즉 성경적 기억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나요? 흔들리고 연기가 난다. 그 조합은 어디서 나오나요? 누구든지 생각합니까? 좋은.

시내산. 지진이 난 곳에는 산이 흔들리고, 산 위에 연기가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계시하시는 시점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했듯이 주님은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나게 한다는 환상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아마도 일년 중 가장 신성한 날인 욕 키푸르(Yom Kippur)에 대한 환상일 수도 있고, 이곳의 주제는 거룩합니다. 일년 중 가장 거룩한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가져갔나요?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궤와 그룹들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줄로 생각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은 주님을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스위치가 생겼습니다.

5-8절, 그는 주님을 본 후에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5-8 이후에 커미셔닝을 받으면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주님을 본 후 지금은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상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았다는 생각과 아마도 하나님을 보고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생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표현하는 이 비애는 보는 사람인 그 자신 사이의 대조, 그리고 그 자신 사이의 대조, 즉 책의 다른 곳에서 묘사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과 선지자 자신 사이의 도덕적 대조를 즉각적으로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는 “나는 잃어버리고 끊어지고 망하고 멸망하였나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왕을 뵈었나이다. 자, 여기에 대조가 있습니다. 예언은 웃시야 왕이 죽던 해인 6장부터 시작됩니다.

위대했던 웃시야 왕과 왕이 대문자 K. 하멜렉, 왕으로 되어 있는 모습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으로 묘사되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헤셀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두 유대인과 함께 신학자로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마르틴 부버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권 이야기로 묘사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주권. 그리고 여러분이 주기도문,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 부르짖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왕권이 임하고, 여러분의 통치, 통치, 주권이 임하고, 여전히 회당 기도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요구합니다. 이 땅과 그 통치와 통치를 받아야 할 모든 권세와 악.

그래서 통치하고, 통치하고, 책임을 지는 아이디어입니다. 내 눈은 왕을 보았습니다. 왕 중의 왕.

그래서 그는 그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몇 가지 마지막 생각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스랍 중 한 사람이 제단에서 솟을 가져옵니다.

랍비들은 이사야의 입술을 만지는 것이 아마도 예언적 영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논평합니다. 입술을 만지는 것. 확실히 이사야 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셨다. 이는 비유적으로 신성한 영감을 나타내거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며, 당신은 내 말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제단에서 불이 와서 그의 입술에 닿는 것을 봅니다. 불은 무엇을 하는가? 불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정결케 합니다. 금속을 정화합니다.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여기서 제단에 대한 언급은 아마도 우리에게 속죄나 용서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불은 또한 불의 허처럼 오순절 날의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불은 신의 상징이다. 연기가 나는 화로인 불은 동물을 자르는 것과 함께 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시대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불 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여기서 불은 이사야의 경우 그의 예언적 발언의 근원이 될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있었던 모든 장애는 정화됩니다. 그리고 그 불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과 입술을 어루만져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가 아닙니다. 아마도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적 존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교부들은 항상 히브리어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의미를 읽어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다신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접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은 히브리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세라핌의 하늘 궁정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한 위엄의 복수형일 수도 있는데, 때때로 복수형은 단순히 높이거나 구별하고 눈에 띄는 어떤 것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하기 위해 복수형으로 표시된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입니다. 물인 마임(Mayim)은 하나이다. 생명을 뜻하는 하임은 하나이다.

천국을 뜻하는 쉘마임(Shemayim)은 하나이다. 따라서 복수형은 때로는 눈에 띄는 어떤 것에 대해 단순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기서는 삼위일체가 아닐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로 가서 커미션을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26, 이사야가 선정한 구절, 1부입니다.